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25호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

2020년 6월 21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성령이 온 누리에 | 정명오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사랑의 주여,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J. S. Bach) ...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39장(주 은혜를 받으려)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고전 6:11),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 4:24).

회 중: 아멘.

*송영

성가대

*시편교독

목 사: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회 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목 사: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회 중: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목 사: 주님께서 지으신 못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회 중: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시 86:5-10).

경배찬송

191장(내가 매일 기쁘게)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 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 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할렐루야**(경동찬송 6장) **다함께**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1:14-21** **1부: 이무한 집사**
2부: 신태광 집사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덩굴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 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지 않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로마서 6:3-11 1부: 송미경 집사

2부: 홍은주 집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0:24-31 목사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 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칼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함천진 장로

응답송 성가대

특송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J. C. Rinck) 1부 성가대

지휘: 정록기 집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편 23편(나운영) 2부 독창: 이재은 집사

설교 “두려워하지 말아라”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302장(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다함께

1.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그 이름 그 나라 땅위에 오소서 거룩한 그 이름
2. 일용할 양식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3. 유혹을 멀게 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4. 나라와 권세와 영광 거룩한 그 이름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거룩한 그 이름
5.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

***축도** 목사

***송영** 성가대

후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M. W. Moody)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뒷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회학교(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와 경청(청년) 주일예배 안내

- ▶유치부: 주일 오전 9시 30분 경동어린이집
- ▶어린이부: 주일 오전 9시 30분 장공채플실
- ▶중·고등부: 주일 오전 9시 30분 여해문화공간
- ▶경청(청년): 주일 오후 2시 장공채플실

2.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안내

-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사무실(T. 02-2274-0161)
-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 필히 착용 후 입장

3.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안내

-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

4. 주일예배 영상 안내

-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5. 다음 주일(6월 28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심정기 장로	1부	문송천 집사 · 이혜경 권사	2부	최정현 집사, 최송이 집사	

특별봉헌 6월 7일

감사헌금

강미연(감사), 김기현(감사), 김동준(5월 감사),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영주(오/감사), 김정애(감사), 김진희(생일 감사), 박성준·김성(부모님 추모), 박세훈·장은영(감사), 박중자(범사), 서은원·한정숙(감사), 신명호(범사), 신태광·홍은주(딸 결혼 감사), 이강송·채해림(십일조), 이민주(감사), 정병숙(증손자 탄생), 조영인(이사), 채수일·김경숙(범사), 최정옥(동해 기도원 다녀옴), 허삼·홍은희(감사), 홍수화(십일조), 무기명(감사), 무기명(조각상 헌금)

지정헌금

탈북자지원헌금

김남강·인보영, 김병태·김수미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마가복음서 7:28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사도행전 11:16-18	차별 없는 사랑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마가복음서 7:24-30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신앙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마가복음서 7:24-30	살리는 믿음	박선교 목사

다음 주일 말씀

6월 28일(성령강림 후 넷째 주일)

성 경: 구 약(창세기 22:1-14)

서신서(로마서 6:22-23)

복음서(마태복음서 10:40-42)

설 교: “하나님을 시험한 아브라함”, 채수일 목사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1.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2.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3.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यो
내가 주의 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나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 보라
 2.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3.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 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 (후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